

이란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관계와 시사점

박복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장 (bypark@kiep.go.kr, Tel: 3460-1149)

1. 배경
2. 이란의 딜레마
3. 미국의 딜레마
4. 유럽의 딜레마
5.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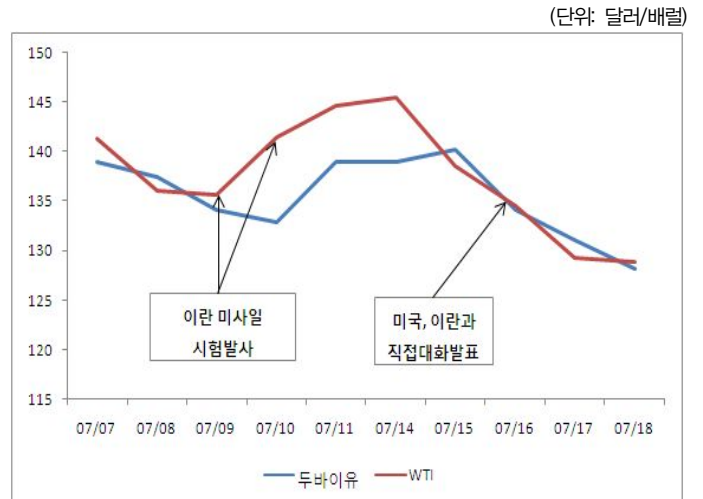
- ▶ 최근 미국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란과의 고위급 직접 대화에 나서고 이란에 대표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고립에서 대화로 급반전되고 있음.
- 미국은 이란 핵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핵무기개발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럽과 더불어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왔으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까지도 언급한 바 있음.
- 하지만 미국의 정책이 대화 쪽으로 선회할 조짐이 나타나자 지정학적 불안이 감소하여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에너지대국인 이란의 성장잠재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 최근의 미·이란 간 관계의 급반전은, 핵개발이라는 안보문제와 에너지개발이라는 경제문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던 모든 당사국들, 즉 이란, 미국 및 유럽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이란의 보수파 정권은 핵주권을 천명하며 핵개발을 강행했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대규모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의 차질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
- 미국은 이란 핵개발 억제를 위해 수년 간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란 에너지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만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경제제재에 동참했지만, 이란에서의 사업기회 상실과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원 확보 차질이라는 희생을 치러야 하는 상황임.
- ▶ 현재로서는 미·이란 간 관계개선을 낙관하기 어렵지만 만약 대화가 지속된다면 지정학적 위험 감소로 인한 국제유가 안정과 BRICs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진 이란경제의 활력 회복이 예상됨.
- 우리도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인 이란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하며, 이란산 LNG(액화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서방과 이란과의 관계가 며칠 사이에 군사적 충돌우려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로 급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란은 수년 전부터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란은 이것이 핵발전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 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은 핵무기개발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경제제재를 통한 이란의 핵개발 저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이란은 핵주권을 강조하며 오히려 핵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
 -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에 맞서 이란이 지난 7월 9일과 10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 세계 4위의 석유생산국인 이란을 둘러싼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은 국제유가를 사상최고치인 145달러(WTI 기준)까지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 며칠 후인 7월 16일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과 직접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고립(isolation)에서 대화(engagement)로 급반전되는 징후가 나타남.
 - 나아가 미국이 테헤란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약 30년간 미국과 이란 간 외교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미·이란 관계의 급반전은 국제유가 급락의 주요 배경이 되었는데, 국제유가는 7월 15일 이후 4일 연속 떨어져 16달러(11%)나 하락하였음.
- 현재의 이란 문제는 단순히 핵개발을 둘러싼 이란·미국 간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안보문제와 에너지개발문제를 둘러싸고 이란, 미국, 유럽, 주변중동국,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정치적 문제임.

- 특히 이란, 미국, 유럽은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국이지만 각자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관계의 급반전은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모색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1. 이란사태와 국제유가 변화



자료: 한국석유공사 데이터베이스

2. 이란의 딜레마

- 2004년 집권한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극단적 보수파로 이슬람 원리를 강조하고 핵개발을 가속화했으며, 미국 등 서방권과의 적대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해 왔음.
 -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그 이전의 개혁적 정권이 추진한 경제자유화와 개방 조치들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이 핵주권을 침해할 경우 석유의 무기화와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강경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를 초래하고,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자와 에너지개발을 위축시키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음.
 -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소위 ILSA법)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2006년 12월 UN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응하여 무기관련 교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제제재를 통과시켰음.

-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UN을 통한 추가적인 경제제재가 어려워지자 미국과 EU는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들을 단행하였음.
 - 이러한 경제제재 조치들은 이란이 추진 중인 다양한 석유 및 가스개발 프로젝트들을 지연시켰으며, 서방기업들의 대 이란 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기존의 투자를 철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특히 이란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개발사업은 최근 유럽기업의 투자포기와 판매처 확보 곤란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이란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은 부진한 편인데, 현재 페르시아 해의 세계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South Pars)에서 대규모 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가스개발 사업으로 향후 이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란은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세계 제2의 가스 수출국이 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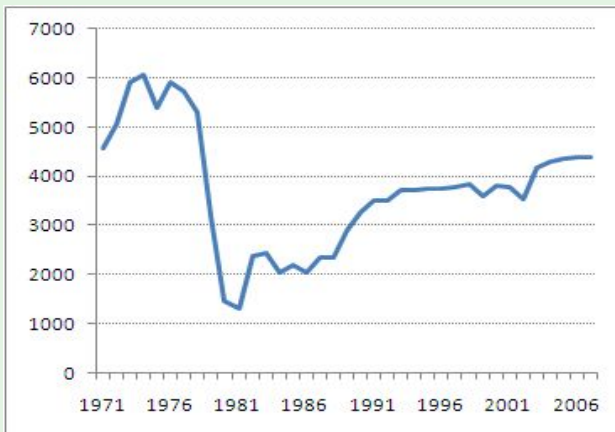
- 2007년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12bcm(10억 입방미터)이며, 2020년의 생산목표는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한 475bcm로 설정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유럽계 에너지기업들이 사우스파 사업에서 잇달아 철수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무력충돌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의 증대와 경제제재에 따른 사업수행의 곤란이 철수의 배경이 되었음.
- 올해 5월 Shell과 Repsol이 사우스파 13단계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에는 프랑스의 Total사가 11단계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이란은 생산된 천연가스를 인근 중동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유럽국가들에 장기계약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긴장관계 때문에 유럽국가들과의 판매협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국 에너지대국인 이란은 고유가라는 현재의 유리한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둘러싼 서방과의 대립관계 때문에 개발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적 프로젝트마저 좌초될 위험에 직면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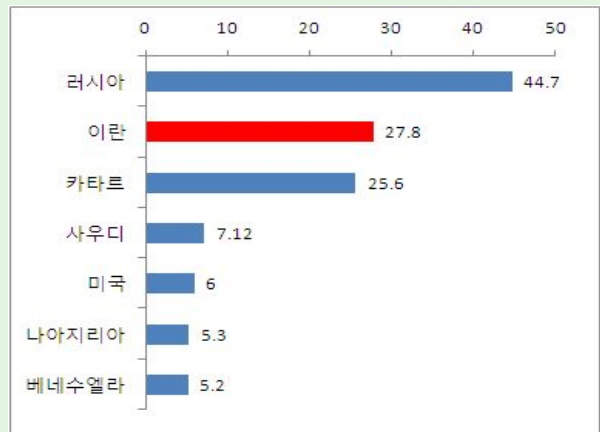
글상자 1. 이란의 에너지자원

- 이란은 세계 2위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란·이라크 전쟁과 투자부진으로 생산량은 하루 430만 배럴에 정체되어 있는데, 1970년대에는 생산량이 하루 600만 배럴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 이란은 천연가스 역시 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시 투자부족으로 생산은 부진한데, 매장량은 러시아의 65%에 이르지만 생산량은 러시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란 석유생산량 추이(천 배럴/일)



국가별 천연가스 매장량(조m³)



3. 미국의 딜레마

- 미국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과 이란 내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을 계기로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며, 특히 2002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여 대이란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이란이 이라크 내 시아파 무장세력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에서 이란·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시아파 동맹이 형성되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이란이 핵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경제제재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이란은 오히려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은 이란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UN을 통한 경제제재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경제제재의 실효성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었음.
- 그 후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를 내세워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추진한 결과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이란은 오히려 핵개발을 가속화하여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음.
- 특히 이란 핵무기의 일차적 목표인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단독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미국은 이란과의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이란 주변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도 이란으로부터의 핵위협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자칫하면 중동 지역 전체에서 핵개발 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음.
- 이란사태로 인한 유가상승과 이란 에너지 개발참여를 둘러싼 국제관계도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딜레마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서브프라임 위기로 미국경제가 심각한 경기하강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고유가는 미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란과의 대립으로 미국 에너지기업이 이란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계 기업마저 철수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에너지개발에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경계할 수 있음.
- 중국은 몇 해 전부터 이란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기업이 이란의 천연가스사업에서 철수를 발표하자 러시아 국영에너지기업인 가즈프롬이 참여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 결국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행동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란과의 대립관계 때문에 국제에너지 상황까지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

4. 유럽의 딜레마

- 이란과의 직접협상을 거부하는 미국을 대신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05년부터 이란과 한편으로는 핵협상을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음.
- 이란의 핵개발은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가장 위협적이거나,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유럽에게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들 유럽국가들은 이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가로 핵개발을 중지하도록 하는 협상을 3년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
- 거듭된 협상실패에 대응하여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미국과 공동으로 취하고 있음.
- 유럽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대이란 제재조치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이란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는 비용을 수반하고 있음.
- 미국기업의 이란진출 금지법안 덕분에 유럽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이란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았는데, 최근의 강화된 경제제재 조치 때문에 유럽기업의 이란 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포기가 이어지고 있음.
- 유럽국가들은 이란과의 이런 경제적 관계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계속 강화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음.

- 한편 유럽국가들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이란을 새로운 공급처로 활용하고 싶어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대립관계 때문에 에너지분야 협력은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
- o 서유럽국가들은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되는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천연가스 분쟁 이후 가스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취약해진 상태임.
- o 유럽은 가스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동의 LNG(액화천연가스)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강대국인 이란은 가장 유망한 신규 공급국 중 하나임.
- o 하지만 미국이 이란 에너지부문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여 유럽기업들이 이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 유럽의 천연가스 도입이 어려운 상황임.
- o 올해 3월 스위스 에너지기업인 EGL은 이란에서 25년간 천연가스를 장기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스위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다른 유사한 계약이 잇따를 것을 우려한 바 있음.
- o 이러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이란산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이란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결국 유럽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에너지분야 진출과 새로운 천연가스 도입원의 확보를 위해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는 딜레마 상황에 있음.

5. 전망과 시사점

- 미국과 이란 사이의 고위급 직접대화외 외교관계 복원 조짐은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양국간 관계의 개선을 전망하기는 시기상조임.
- 이란으로서는 여전히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란 핵개발은 이스라엘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중동에 핵개발 경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는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대화나 협상과정에서 양국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미국이 양보할 경우 이스라엘이 미국과는 별도로 무력대응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7월 18일 미 국무부 차관이 참석한 6개국(미, 영, 프, 독, 러, 중)과 이란 간 대화에서 이란은 6개국이 제안한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 제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사태해결에 진전이 없었음.
- o ‘동결 대 동결’ 제안이란 공식협상에 앞서 향후 6주간 미국 등 6개국은 대이란 추가제재 논의를 중단하고 이란도 추가적 핵활동을 중단하자는 제안임.
- 하지만 이란으로서는 자국의 에너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은 대이란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이란 내 에너지개발 참여와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현재의 대립관계를 타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고 있음.
- 만약 미·이란 간 관계가 개선되면 유럽 에너지기업들은 이란 에너지분야 진출을 재개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기업들도 진출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이란산 천연가스를 장기도입하기 위한 유럽 각국과 이란 사이의 계약체결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자원 부국이면서 인구대국인 이란은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므로, 국제적 긴장완화 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이란은 7,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의 에너지 대국으로서 BRICs 국가에 버금가는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란에 대한 진출과 투자가 위축되었는데, 관계 개선 시 사우스파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란 내 에너지개발과 플랜트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중동국가 중 실질적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이미지도 양호

하므로 경제관계를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 2007년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33억 달러였는데 대 UAE 수출 중 상당량이 이란으로 재수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란은 중동국가의 최대의 수출시장임.
- 올해 5월까지의 대이란 수출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03%나 급증하였음.

- 최근 세계 천연가스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LNG 장기도입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란의 지정학적 위험 감소 시 이란과의 경제관계 강화 및 천연가스 도입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란산 LNG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EP**

글상자 2. 우리나라와 이란의 경제관계

- 총 2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란의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사업인 사우스파 프로젝트에 현대건설, GS건설 등 우리나라 플랜트사들은 오래 전부터 참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란에 자동차부품, 플랜트장비,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2007년 수출액 33억 달러, 수입액 65억 달러).

우리기업의 사우스파 사업 참여

단계	참여내용
2, 3	현대건설 가스처리시설 공사수주 (10억 달러)
3, 4	현대건설 가스처리시설 공사수주 (16억 달러)
9, 10	GS건설 사업참여
9, 10	한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9억 달러)

한·이란 교역액 추이(백만 달러)

